

“안녕하십니까?”

제14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건국대학교 이석원 인사 올립니다.

학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터널인으로서 우리 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학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봉사를 위하여 학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터널·지하공간 관련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동떨어진 두 공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창조기술입니다. 우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역시 다양한 분야의 터널인들이 학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 입회하여 기술위원회 위원장, 논문편집위원회 간사, 학회지 전담이사, 학술 전담이사, 지하안전 특임이사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터널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있어 학회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저에게 제14대 학회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소통하는 학회, 젊고 다양한 학회, 즐거운 학회, 열린 학회, 보답하는 학회, 지속가능한 학회”를 이루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성심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젊고 다양한 학회

젊은 터널인 참여를 확대하여 학회를 젊게, 업역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젊은 터널인이 학회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부족과 시간 투자 대비 얻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터널기술인 4차산업 관련 터널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접목기술, BIM 접목기술 등과 같이 젊은 터널인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업역의 콘텐츠를 bottom-up 형식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기술위원회를 구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들은 기술강좌 형식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보답하는 학회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무료 기술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실무적인 터널공학은 대학에서 교육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학회에서 실무적인 터널기술을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한다면 많은 젊은 터널인은 물론 새로운 터널인을 우리 학회가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 및 회원사에게 학회가 pay-back 하는 보답입니다. 정기적으로 실무자분들을 초빙하여 무료 기술강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 증대는 물론 터널·지하공간 분야에서 우리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즐거운 학회 소통하는 학회

친목 활동을 통하여 즐거운 학회,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학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들 간의 만남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많은 소통창구를 이루기 위하여 각종 동호회 창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원로님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호회 및 다양한 문화활동을 만들고 개최하겠습니다. 젊은 터널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호회,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학회

기술기능 강화로 터널·지하공간 최고 전문학회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산업 기술과 방향은 급속도로 발전·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회차원에서 미래 터널기술에 대한 예측과 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미래 터널기술에 대한 기술연구과제를 학회차원에서 발주하여 회원들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배포·홍보하여 터널·지하공간 최고 전문학회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린 학회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새로운 학회운영을 시도하겠습니다.

회원들의 학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회지, 홈페이지, 안내문자 등의 소통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전달과정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학회 운영방안으로, ① 매달 학회 소식지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 ② SNS 등 소통·참여 채널의 다양화, ③ 시대적으로 이슈화된 주제의 행사 개최, ④ 무료 기술강좌 개최 등을 시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제적 학회

국제적 교류 확대

국제적 교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ITA의 기술위원회(WG)와 우리 학회의 기술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국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보다 수익성 높은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터널구조물들이 ITA 수상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역대 회장님들이 잘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학회를 누구보다도 잘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이상으로 언급한 여섯 가지 핵심사항들에 대해 임기기간동안 성심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회원님들의 권익과 발전에 적게나마 이바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열린학회, 소통하는 학회,
보답하는 학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2020년 03월 09일

이 석 원 올림